

중국 COSCO그룹 일본내 포워딩 허가 취득

외항·내항·철도, 일본내 발착화물에 참가

중국원양운수총공사(COSCO)그룹의 일본 법인인 코스콘재팬익스프레스가 1월 5일자로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외항해운, 내항해운, 철도수송 등을 커버하는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의 허가를 취득했다.

이번 허가취득에 의해서 COSCO그룹은 제도상 포워딩 사업자로서 일본 내륙은 물론 피더 수송을 포함한 일본의 발착화물 취급이 가능해졌다.

코스콘재팬익스프레스의 허가내용은 △외국인 국제 제2종 화물이용운송 사업(외항해운)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내항해운) △제2종 화물이용운송사업(철도) 등이다.

외항해운에서는 COSCON과 COSCO그룹의 100%자회사 상하이범야항운(판아시아쉽핑)을 이용해 주로 일-중간의 수출입화물을 수송하게 된다.

또 내항해운에서는 요코하마-토마코마이간에서 산에이항운을 이용한다.

철도에서는 기타큐슈, 코베, 오사카, 우메다,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 등의 거점역간에서 전국통운을 이용한다.

외항해운을 이용한 국제 제2종 이용운송사업의 허가는 작년 5월의 일중 차관급 협의에서 중국기업의 참여규제를 철폐키로 한 이후 첫 케이스이다.

일본 정부는 외자계 기업(외국자본이 3분의 1 이상 등)의 국제항공, 국제 해운의 이용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화물이용운송사업'의 골조를 마련해 외자규제가 있는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의 입장을 고려하여 제한을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중국 정부가 그동안 포워딩 부문에 대해

외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한 포워딩 사업허가를 인가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중국이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시에 공약한 포워딩 사업의 대외 개방 스케줄에 따라 차례차례 개방해 왔기 때문에, 외항해운에 관해서는 작년 5월에 '외국인 화물이용운송사업'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인허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항만간 수송의 제1종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에 이스트라이트트랜스포트(본사 오사카시), 10월에 아시아트랜스포트(본사 오사카시) 등 2개사가 등록을 마쳤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국제항공에 대한 외국인 화물이용운송사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항공일대 라이선스에 외자 규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다.

로테르담항 컨테이너화물 처리량 12% 증가

전체 화물은 3억6,900만톤으로 5% 늘어

네델란드의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화물 취급량이 지난해 큰 폭으로 늘었다. 항만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로테르담항의 컨테이너화물 처리량은 930만 TEU로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했다.

또 이 항만에서 처리된 벌크화물 등을 포함한 전체화물은 3억6,900만톤으로 5% 증가했다.

항만당국은 컨테이너화물이 증가한 것은 러시아, 중동지역으로 가는 환적화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화물 이외에 드라이벌크 처리량은 9,000만톤으로 이중 1,070만톤이 환적 농산품이며, 액체벌크는 6% 증가한 1억7,000만톤에 달했다.